

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 발효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

- 폭염 ‘심각’ 단계 발령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체계 돌입
-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민감대상 관리 강화, 위기 상황 총력 대응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‘심각’ 단계로 상향하고,

○ 25일(금) 오후 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.

* 전국의 40%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5℃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○ 오늘(25일)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(98%)에 폭염특보가 발표되었으며,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*는 어제(24일) 기준 사망 10명을 포함해 1,979명에 이르고 있다.

* 질병청, 온열질환감시체계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(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)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.

○ 노인, 농업인, 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찰 활동 등을 통한 안전 확인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추진하고,

○ 공사장 등 야외 근로자의 작업장과 다중운집인과 행사 등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강화도 지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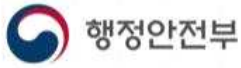
○ 또한, 폭염대비 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을 적극 운영하고,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주의와 전력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며,

○ 온열질환 대처요령 등 대국민 대상 폭염 행동요령 등을 적극 홍보 할 것을 요청했다.

-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“정부는 폭염에 대비해 국민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, 취약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”을 강조하면서,
- “국민께서도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,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행동요령에 따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실 것”을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진희 (044-205-6360)
		담당자	사무관	전혜숙 (044-205-6364)





폭염, 6대 행동요령

1

폭염특보

본격적인
무더위

폭염경보 35℃
폭염주의보 33℃

무더위 기상상황 확인

2

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

3

야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

4

※ 실내온도 26~28℃ 유지

무더위 시 시원한 장소 휴식

5

충분한 수분섭취

6

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